

UNIVERSITY OF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International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FIRST LANGUAGE KOREAN**

**0521/01**

Paper 1 Reading

**SPECIMEN PAPER**

**2 hours**

Additional Materials: Answer Booklet/Paper

**READ THESE INSTRUCTIONS FIRST**

If you have been given an Answer Booklet,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front cover of the Booklet.  
Write your Centre number, candidate number and name on all the work you hand in.  
Write in dark blue or black pen.  
Do not use staples, paper clips, highlighters, glue or correction fluid.

Answer **all** questions.  
You should pay attention to punctuation, spelling and handwriting.

At the end of the examination, fasten all your work securely together.  
The number of marks is given in brackets [ ] at the end of each question or part question.

This document consists of **6** printed pages.

© UCLES 2006



UNIVERSITY of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Turn over**

## Part 1

Text 1 을 주의 깊게 읽고 아래 질문들에 모두 답하십시오.

### Text 1

아래 글은 윤홍길의 <아홉 썰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중의 일부분입니다. 직업이 교사로, 가난한 이웃들에 비해 비교적 넉넉한 편이던 화자는, 이 마을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된 한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단대리를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그 사건이 있는 직후였다. 맞다 그것은 분명히 내게 있어서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집 근처에 이르러 나는 한 떼의 아이들이 천변에서 놀고 있는 걸 보았다. 왠지 모르게 떠드는 조무래기들 틈에 동준이 녀석도 끼어 있었다. 녀석이 어느새 저렇게 커서 이웃에 친구까지 사귀었나 싶어 나는 먼 발치에서 대견스럽게 지켜 보았다. 내 아이만 유난히 얼굴이 희었다. 다른 애들이 지나치게 까만 탓인지도 모른다. 특히 그 중에서도 고물 장수의 아들은 방금 굴뚝 속에서 기어나온 꼴이었다. 동준이가 고물 장수 아들에게 뭐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깜장이 그 아이가 땅바닥에 양팔을 짚고 개구리처럼 폴짝폴짝 뛰기 시작했다. 동준이가 그애 앞에다 뭘 던졌다. 그리고 보니 동준이 녀석은 쿠킨지 원지 하는 과자 상자를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다. 고물 장수 아들이 땅에 떨어진 과자를 입으로 물어 올리더니 흠도 안 떨고는 그대로 아삭아삭 씹어 먹었다. 먹는 일이 끝나자 고물 장수 아들은 하얗게 이빨을 드러내며 웃고는 다시 스타팅 블록에 들어선 것 같은 자세를 취했다. 동준이가 뭐라고 또 소리쳤다. 깜장이가 이번에 한쪽 팔로 땅을 짚고 그 팔과 가슴 사이로 다른 팔을 넣어 꺾어 올려서 코를 틀어진 다음 옆나게 뱅뱅이를 돌기 시작했다. 그애는 대어섯 바퀴도 못 돌아 고꾸라졌다. 일어나서 다시 들다가는 또 고꾸라졌다. 몇 차례고 반복해서 기어코 지시받은 횟수를 다 채우는 모양이었다. 몇 바퀴나 돌았는지 아이는 다 돌고 나서도 어지러워서 바로 서지를 못했다. 동준이가 과자에다 침을 뱉어 뺏아서 땅바닥에 던졌다. 동준이는 뺏 둘러서서 구경하는 다른 애들한테도 똑 같은 방식으로 놀이에 가담할 것을 종용하는

눈치였으나 갈수록 가혹해지는 녀석의 요구 조건에 기가 질려 엄두를 못 내고 군침만 삼키는 듯했다. 동준이가 과자를 왼 오른팔을 높이 올려 개울 쪽을 겨냥하고 힘껏 팔매질을 했다. 20  
그러자 조금의 주저도 없이 고물 장수 아들이 석축을 타고 제방 아래로 뽀르르 달려 내려갔다. 나는 그 개울에 관해서 일찍부터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와 집  
집마다 버리는 오물을 한데 모아 탄천(炭川)으로 실어 나르는 거대한 하수도였다.

내가 뒷전에 서서 구경하기 전에는 그와 같은 놀이가 얼마나 길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목격한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나는 동준이 녀석으로부터 과자 상자를 빼앗아 개울 속에 25  
집어 던졌다. 그리고는 녀석의 따귀를 마구 갈겼다. 마음 같아서는 고물 장수 아들을 흠씬 두들겨 주고 싶었는데 손이 자꾸만 내 자식놈 쪽으로 빗나갔다. 동준이 녀석을 한참 때리다가  
퍼뜩 생각이 미쳐 뒤를 돌아보니 고물 장수 아들은 칙칙한 개울물을 따라 천방지축 과자 상자를 쫓아가는 중이었다.

무슨 수를 써서든 이놈의 단대리를 빠져 나가자고 아내에게 소리치던 그 날 밤엔 영 잠이 30  
오질 않았다. 졸담배짚로 밤늦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내가 생각한 것은 찰스 램과 찰스 디킨스였다. 나하고는 전혀 인연이 안 닿는 땅에서 동떨어진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이  
갈마들이로 나를 깨어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었다.

똑 같은 이름을 가진 점말고도 그들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불 35  
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점이 그렇고, 문학 작품을 통해서 빈민가의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쏟은 점이 그런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성(姓)이 각각이듯이 작품을 떠난 실생활에  
서의 그들은 성격이 판판이었다 한다. 램이 정신 분열증으로 자기 친모를 살해한 누이를 돌보면서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는 동안 글과 인간이 일치된 삶을 산 반면에, 어린 나이에 구두  
약 공장에서 노동하면서 독학으로 성장한 디킨스는 훗날 문명을 떨치고 유족한 생활을 하게  
되자 동전을 구걸하는 빈민가의 어린이들을 지팡이로 쫓아 버리곤 했다는 것이다. 램이 옳 40  
다면 디킨스가 그른 것이고, 디킨스가 옳다면 램이 그르게 된다. 가급적이면 나는 램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러나 디킨스의 궁둥이를 걷어할 만큼 나는 몇몇한 기분일 수가 없었다.

나도 그랬다. 내 친구들도 그랬다. 부자는 경멸해도 괜찮은 것이지만 빈자는 절대로 미워

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었다. 당연히 그래야만 옳은 것으로 알았다. <중략>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에 불과한 것이었다. 자기 자신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 45  
는 것임을 나는 솔직히 자백하지 않을 수 없다. <중략> 우리는 소주를 마시면서 양주를 마실  
날을 꿈꾸고 수십 통의 껌값을 팁으로 던지기도 하고, 버스를 타면서 택시 합승을, 합승을 하  
면서 자가용을 굴릴 날을 기약했다. 램의 가슴을 배반하는 디킨스의 머리는 매우 완강한 것  
이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과 손발 사이에 가로놓인 엄청난 괴리는 우리로서는 사  
실 어쩔 수 없는 것이어서 도리어 나는 밤새껏 램의 궁둥이를 걸어차면서 잠을 온전히 설치 50  
고 말았다.

1 Text 1을 읽은 후에 다음 질문들에 모두 답하십시오. 답할 때에는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고 자신의 말로 정리하십시오.

(질문 끝에 있는 괄호 안의 숫자는 각 문항당 점수를 의미합니다. 답안에 사용된 언어구사력에 따라 5점이 더해집니다. 따라서 가능한 총점은  $20 + 5 = 25$ 점입니다.)

- (a) 이 글의 화자가 퇴근길에 목격한 장면을 통해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자신의 말로 쓰십시오. [1]
- (b) 6-7줄에서 얼굴이 희고 겁다는 것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쓰십시오. [2]
- (c) 동준이가 고물 장수 아들에게 시킨 것 세가지를 자신의 말로 요약하십시오. [3]
- (d) 12-13줄에 있는 ‘다시 스타팅 블록에 선 것 같은 자세를 취했다’는 문맥상 무슨 의미인지 간단히 쓰십시오. [1]
- (e) 35-42줄을 다시 읽고 찰스 램과 찰스 디킨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자신의 말로 구체적으로 요약하십시오. [6]
- (f) 이 글의 화자가 찰스 램과 찰스 디킨스의 생애를 통해 갖게 되는 딜레마는 무엇인지 50-70 단어 정도로 설명하십시오. [4]
- (g) 이 글의 화자가 단대리를 떠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1]
- (h) 35-53줄을 다시 읽고 화자가 부자와 빈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과 태도를 자신의 말로 설명하십시오. [2]

## Part 2

Text 2를 주의 깊게 읽고 Text 1을 다시 한번 읽은 후에 Question 2에 답하십시오.

### Text 2

이 글은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 중 일부분입니다. 여기서 주인공 승호는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미혜의 집에 초대 받아 그녀의 오빠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 손이 귀한 집안이라서 오빠가 태어나자 온 집안이 경사났다고 법석을 떨었다고 하더군요. 사진 봤죠? 민석오빠 사진. 아직도 내 수첩속에 소중히 들어 있는 거. 귀엽고 눈빛이 초롱한 아이였는데, 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돼 간질이 도졌대요 그만 ..... 집안에 그런 내력이 없는데 옥수수 튀긴 강냉이를 잘못 집어먹고 그랬다는 말도 있고, 유전이라는 말도 있고 ..... 그때부터 집안에는 내내 음울한 기운이 떠나질 않았어요.

오빠 어릴 적부터 아버지 자전거를 무척이나 잘 탔어요. 짐칸 달린 묵직한 자전거 있죠? 어린 날 태우고도 잘 달렸으니까. 한 번은 안장을 두 손으로 붙잡고 자전거 뒤에 매달려 가는데 오빠가 자꾸 부들거리면서 이상해 지는 거예요. 고개를 뒤로 깔딱 짓혀 마치 나를 보려고 하는 듯하다가도 술먹은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페달을 밟고. 그게 간질 발작 징후인지는 나중에 알았죠. 오빠 갑자기 자전거 핸들을 놓쳤고 나는 길가에 나뉠그러졌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입에 버글버글 게거품을 문 오빠는 사지를 죽어가는 개구락지처럼 비틀고, 아주 끔찍했거든요. 나는 어쩔 줄 몰라 구경꾼처럼 서 있기만 했어요. 팔꿈치하고 무릎이 다 까졌지만 난 아픈 줄도 몰랐어요. 누군가 오빠의 입에다 손수건을 갖다 물리더군요. 허 깨물지 말라고.

그게 발작의 시초였고, 이후로 어머니 남부끄럽다며 오빠를 다락 속에 몰아넣고 키웠어요. 자라면서 가위를 많이 눌렀어요. 벽장 속에서 온몸에 털난 짐승이 기어나와 내 목을 조르는 꿈이었거든요. 물론 그 짐승은 민석오빠였죠. 아마 무의식에 그렇게 자리잡았을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반 친구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온 적이 없어요. 뒤뜰이 넓어 여름철에 평상을 나무 그늘 속에 갖다 놓고 둘러앉아 얘기하면 정말 좋은 곳인데 .....

밤중에 벽지를 사그락사그락 긁는 소리 있죠? 아버진 그 소리에 신경이 닳아 끊어져 술을 가까이 하시다 결국 오래 못 사셨어요. 그 다락 속의 오빠는 콜라만 보면 기가 넘어가도록 환장을 했어요. 콜라는 바깥세상의 맛을 다 뭉쳐 놓은 것 같았나봐요. 특 쓰는 그 맛 때문이었을 거예요. 엄마는 기가 승해지면 더 발작을 해 안된다고, 반찬에다 자극적 양념을 일절 쓰지 않는 상을 봐서 하루에 두 끼씩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양만 올려보냈지요. 오빠 밥도 콜라에 말아먹고 어쩔 땐 며칠씩 콜라만 비운 채 상을 벽장 밖으로 물리곤 하더라구요.

스무 살이 넘었지만 성장을 멈춘 것 같은 민석오빠는 웅크리고 앉으면 꼭 어린애 같았어요. 하루에 한 번씩 휠체어를 타고 뒤뜰을 천천히 돌면서 햇빛 구경을 하거든요. 어쩔 땐 그 휠체어의 뒤를 내가 밀었어요. 뒤뜰에 있는 우물을 그냥 지나치려면 난리를 떨었어요. 우물 앞에서 고개를 숙

여 한동안 우뚝한 속을 들여다보곤 했죠. 질질 새는 침이 우물 속으로 빠지는 모습을 지켜보자면 그냥 휠체어를 우물 속으로 밀어넣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어요.

..... 나이에 따른 몸의 호르몬 작용은 속일 수 없었나봐요. 이성에 대한 그리움 같은 감정도 없진 않았을 테고 ..... 아마 다락 틈새로 눈을 박고 ..... 그랬을 거예요. 그날은 학교에서 돌아온 내가 체력장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가방을 방에 내던진 채 그대로 잠이 들었나 봐요. 꿈결인지 어쩐지 자꾸 숨이 가빠져서 .....

눈을 떠 보니 그 오빠의 일그러진 얼굴이 바로 내 코 앞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 와락 밀치고 일어나 보니..... 그때의 그 수치심이란 ..... 나는 내 몸뚱어리를 훑어보며 몸을 비비 꼬고 있던 민석오빠에게 물건을 닦치는 대로 집어던지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오빠도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얼굴이 빨개져 허겁지겁 다락으로 기어 올라가려 했지만 번번히 미끄러지면서 버둥거리는 거예요. 마침 내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엄마한테 함께 죽고 말자며 휘둘러대는 다름이 방망이질에 녹신나게 얻어맞고 며칠 간은 꼭기마저 끊고 지냈어요.

하루는 엄마가 친정일로 고향에 가시면서 오빠 밥을 잘 차려주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무서우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자라고 하더군요. 다락 문을 잠그는 자물쇠와 열쇠를 건네주면서, 밥을 줄 때를 빼고는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밥 때뿐만 아니라 한 번도 다락문을 열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친구를 불러와서 잔 게 아니라 내가 아예 친구네 집에 가서 일주일을 보냈거든요. 민석오빠는 하루에 한 번쯤은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야지만 살 수가 있는데 .....

일주일 뒤에 돌아온 엄마가 다락문을 열어보니 걸레처럼 축 늘어진 민석오빠가 퉁굴어져 나왔어요. 아직 숨이 끊어지진 않았지만 며칠 못 갔어요. 내가 죽인 거나 다름이 없죠 뭐. 다락 벽지 안 쪽이 손톱에 긁혀 남김없이 거덜나 있었어요.

**2 Text 2를 읽고, Text 1 다시 한번 읽은 후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Text 1과 Text 2에서 서술하고 있는 경험들의 성격과 그것이 서술되는 방식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정리하십시오.

답안의 내용에 따라 15점까지 주어지며, 답안의 언어구사력에 따라 추가로 10점이 주어집니다. (문체와 구성에 5점, 언어의 정확성에 5점)